

### 양촌 권근의 입학도설

입학도설(入學圖說)은 성리학의 그림 책이다. 대학이나 중용 등의 추상적이고 어려운 성리학의 철학을 쉬운 그림으로 설명한 책이다. 양촌 권근(1352~1409)이 공양왕 2년(1390)에 저술했다. 입학도설에는 모두 40여개의 도설이 실려 있다.

도설의 핵심은 '천인심성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圖'이고, '대학지도大學之圖' '중용수장분석지도中庸首章分釋之圖' '오경각분체용지도五經各分體用之圖' '홍범구주천인합일도洪範九疇天人合一圖' 등이 대표적이다. 이 도설은 남송 주렴계의 태극도 및 주자의 중용장구의 설을 참조하고 기타의 설을 절충하는 동시에 권근 자신의 견해도 제시했다. 진양 대도호부사 김이음(~1409)이 1396년 진양에 부임 한 후 학생들로부터 입학도설을 얻어 보고 그 정교함에 감탄하여 책을 간행하게 하였다.(김이음의 발문) 국내외에 걸쳐 4-5종이 전해지고 있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는 1425년과 1547년 그리고 1929년에 발간된 판본이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존되어 있다.

입학도설의 저자 양촌 권근은 고려말 조선초의 사상가이자 정치가이다. 조선 최초 문형(文衡)이자 삼봉 정도전과 더불어 유교국가 조선을 유교국가 담게 하는 성리학자 이론의 근거를 마련한 이론가이기도 하다. 정도전이 조선을 창업하는 사상과 제도의 틀을 설계했다면 권근은 조선을 보다 안정화시키는 수성의 사상과 제도적 기반을 다졌던 인물이다. 양촌 권근에게 많은 저술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대표할만한 저술은 입학도설(入學圖說)과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이라고 할 수 있다.

입학도설을 쓴 양촌 권근은 목은 이색의 문인이다. 권근은 스승인 목은 이색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함으로써 정도전 등 혁명세력으로부터 극심한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 공양왕 2년(1390) 5월 윤이 초가 명나라 황제에게 공양왕과 이성계가 군사를 일으켜 명나라를 치러한다고 거짓으로 고하고 명나라의 힘을 빌어 이성계를 제거하려 했던 '윤이 초의 난'에 연좌되어 목은 이색, 도은 이송인 등과 함께 청주옥에 갇혀 있다 갑자기 흥수가 나는 바람에 청주옥 바로 앞에 있는 은행나무에 올라 겨우 살아났다. 이후 전라북도 익산으로 유배지를 옮기게 된다.

이때 "초학자 한 둘이 찾아와서 대학과 중용을 배우려 하여 설명하여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권근의 서문) 안타까운 나머지 권근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철학을 그림으로 그려 "학생들이 질문하면 그에 대해 응답해 주었다. 그 문답한 내용을 기록하여 그림 뒤에 붙이고 이름을 입학도설이라 했다." (서문) 유배지에서 조선 성리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설(圖說)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성리학의 철학적 내용을 그림만 한 것은 모두 그랬다. 그 딱딱한 철학 공부를 그림을 그려 이해시켰다는 점이 기발하다.

변계량(1309-1430)은 "입학도설과 오경



1425년 판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1929년 판본 천인심성합일지도 대중회 소장



양촌 권근 삼대묘소

천견록은 유교의 경서 연구에 이바지한 이 컸으며 후학에게 잘 이용되어 모든 사람에겐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거정(1420-1488) 또한 "입학도설이 후학들에게 성리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퇴계 이황(1501-1570)은 그의 성학십도를 입학도설에서 그대로 채용했다.(퇴계전서 권7, 進學圖說) 입학도설은 한국 도설의 비조였다.(배중호)

유학은 전통적으로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추구했다. 입학도설은 하늘과 인간이 하나 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성리학의 우주론과 인간관이 탑재되어 있다.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공부론의 보고이기도 하다. 전체 모양은 마치 사람 같다. 입학도설에서 가장 핵심은 천인심성합일지도이다. 이 도설은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에 의해 머리는 둥글게 몸은 네모로 그렸다. 인간의 심성을 이기(理氣) 선악(善惡)의 구도로 그렸다. 하늘은 인간의 마음에 하늘의 본성을 그대로 셋팅(setting)했다. 이것이 인의예지(仁義禮智)이다. 또한 인간(人)이란 인(仁)이다. 인(仁)은 모든 선의 으뜸이다. 마음(心)은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것으로 몸을 주관한다.

천일심성합일지도의 오른쪽 길은 성인의 길이다. 사단을 거쳐 순수하면서도 그치지 않고 성(誠)을 다해 진실무망하게 본성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성인(聖人)이라는 설명이다. 그래서 성인은 성(誠)을 지극히 하여 도가 하늘과 같아 지므로 하늘과 똑같이 크다.(聖人與天同大) 군자는 성인으로 가는 본래의 길에서 욕심으로 약간 치우치다 다시 경(敬)으로써 정신을 집중하고 존양과 성찰로 수양하며 성인을 향해 길을 걷는다.

그림의 왼쪽 길은 마음에서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의 기(氣)의 영향을 받아 경우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게 된다. 악의 길은 금수와 짐승으로 가는 길이다. 잔인하여 인을 해치고, 탐욕으로 예를 해치며, 자기만 좋아하는 욕심으로 의를 해치며, 흐리멍덩한 것으로 지혜를 해친다. 그 어긋남이 금수와 멀지 않다.(其違禽獸不遠) 금수는 모두 옆으로 누워 있다.(禽獸皆橫) 머리를 하늘을 향해 들지 못한다. 유학은 인간이 짐승으로 추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未嘗無善) 입학도설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짐승으로 추락하지 않고 성인으로 갈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것이 하늘이 인간에게 준 사명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 당위성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실천해야 하는 존재이다.

양촌 권근에 있어서 입학도설은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되어야 하는 정치적 비전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권근은 유교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유교국가 조선에 출사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했다.(최연식, 창업과 수성의 정치사상) 이것은 권근 자신이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민하던 중에 현실 참여의 계기는 태조 이성계가 1393년 계룡산 행재소에서 환왕(桓王)의 신도비명을 지을 사람으로 권근을 지목하여 소환하는 데서부터 비롯되었다.

또 1395년 명나라와 표전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명나라가 그 주모자인 정도전을 압송하라고 통보했으나 정도전은 병을 핑계로 가지 않았다. 이때 권근이 자청

하여 명나라에 가서(1396) 표전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돌아오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여 수성 정국의 중심적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최연식) 권근은 "사군자(士君子)가 세상에 나서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여 그 법도가 일정하지는 않지만 요컨대 시기에 맞고 의리에 합당하게 할 뿐이다"(양촌집 권17, 贈孟先生詩序)라고 말한다. 절의와 출사를 넘나들었던 권근의 정치적 사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때 그의 정치적 사유는 순수성을 강조하는 백이형(伯夷型)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권근은 책임윤리에 입각하여 실천하는 이윤형(伊尹型)에 가깝다. 때문에 어지러운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치세를 위해 출사하는 것은 선비로서 당연한 시대적 책임이다.

고려 말과 조선 초기 양촌 권근은 창업과 수성의 갈림길에서 수성의 길을 열려준 대사상이었다. 우주와 인간의 도덕적 합일을 추구하는 천일심성합일론을 권력관계에 투영시켜 왕권을 도덕적으로 견제하여 신권과 긴장관계를 해소하려 했다. 왕의 길은 천일심성합일지도의 성인으로 가는 오른쪽 길이어야만 했다. 입학도설은 그 길로 가게 하는 지도인 셈이다. 다른 길이 없다. 다시 대학의 차국평천하로 확장되고 홍범구주천인합일지도에 이르면 군주는 천도를 계승하고 인간의 표준을 세우는 황국을 건립한다."인군이 천하를 다스리는 큰 법이 이것에 더할 것이 없는"지경에 이른다.

고려 말과 조선 초기 양촌 권근은 창업과 수성의 갈림길에서 수성의 길을 열려준 대사상이었다. 우주와 인간의 도덕적 합일을 추구하는 천일심성합일론을 권력관계에 투영시켜 왕권을 도덕적으로 견제하여 신권과 긴장관계를 해소하려 했다. 왕의 길은 천일심성합일지도의 성인으로 가는 오른쪽 길이어야만 했다. 입학도설은 그 길로 가게 하는 지도인 셈이다. 다른 길이 없다. 다시 대학의 차국평천하로 확장되고 홍범구주천인합일지도에 이르면 군주는 천도를 계승하고 인간의 표준을 세우는 황국을 건립한다."인군이 천하를 다스리는 큰 법이 이것에 더할 것이 없는"지경에 이른다.

책임윤리로 무장하고 조선에 출사한 권근은 태종에게 치도(治道) 6조목을 올려 "수성할 때는 반드시 절의를 다한 전대의 신하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고 건의한다. 태조대에 간신으로 평가받던 포은 정몽주를 절의의 축으로 세우기를 건의한 것이다. 이후 정몽주는 조선정치사상의 뿌리가 되고 지금도 충신의 화신이 되어 한국인의 심성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다. 또한 목화록 백성들에게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한 안락점을 배향하고 그 자식들을 중용할 것과 화약을 활용하여 왜구를 무찌른 최무선을 배향하고 그 자식들 역시 중용되도록 태종에게 요청한다.

국가경영에 꼭 필요한 절의와 실용의 두 축을 제시한 것이다. 절의와 실용의 두 축은 씨줄과 날줄이 되어 역사의 그물망을 짠다. 입학도설은 난세를 치세로 전환하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그림책이었다. 오늘날 국가경영자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이렇게 쉽고 간단한 그림책 하나 가지고 있나 묻고 싶다.

편집국장 권행안

### 사자명을 써서 아들 길천군 규(跬)에게 보이다 題四字銘示兒子吉川君跬

권근(權近)

공(公) 공정하면 사사롭지 않다 / 公則不私	관(寬) 너그러우면 가혹함이 없어 / 寬則不苛
마음이 맑아 욕심 없고 / 心清無慾	일마다 인후할 것이다 / 事皆仁厚
행사는 지당하게 된다 / 事出至當	군자의 덕이니 / 君子之德
이것을 정직이라 하느니라 / 是謂正直	경사가 훗날까지 미치지니라 / 慶流于後
근(勤) 부지런하면 게으르지 않다 / 勤則不怠	신(信) 미덥게 하면 허망하지 않으니 / 信則不妄
부지런히 하여 허물짓지 않으면 / 孜孜罔愆	가지기를 지성으로 하라 / 持之以誠
직무를 폐기할 까닭도 없다 / 職無廢弛	그 뜻을 굳게 지켜 / 堅守其意
이것을 충현이라 하느니라 / 是謂忠賢	스스로 변경하지 말라 / 毋自變更

양촌집 권23 명류(銘類)에 있는 글이다. 23권 첫 번째 글은 주종명(鑄鍾銘)이다. 조선이 창업 한지 3년 만에 한 양으로 천도하여 궁궐을 짓고 종을 주조하여 종각을 세우고 종을 달았다는 내용이다. 옛날부터 국가를 두는 자가 큰 공로와 업적을 세우면 반드시 종과 술(鼎)에다 새겼다고 한다. 이 종은 아침 저녁으로 쳐 울려서 백성들의 기뻐하고 잠자고 먹는 시간을 통제하는데 쓰였다고 한다.

양촌 권근은 그 명류의 맨 마지막에 셋째 아들 길천군 규에게 주 종명(鑄鍾銘)이다. 아버지가 아들이 가슴에 새기기를 바라는 네 글자는 공(公), 근(勤), 관(寬), 신(信)이었다. 공(公)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부지런하며(勤) 너그러우며(寬) 미덥게(信) 살라고 당부하는 글인 듯 싶다. 이 글은 오늘날 우리 안동권문들을 일깨우는 명구(名句)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열여덟 사발 마시고도 끄덕하지 않는데... 이것도 사약(死藥)?

수암 권상하는 우암 송시열의 수제자이다. 우암은 건강체질이였다. 한겨울 엄동설한에도 추위를 모를 정도로 손발이 따뜻했다고 한다. 그 비결은 날마다 어린아이의 오줌을 받아 마시는 것이었다. 예부터 한방에서는 소변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요로법(尿療法)이 유행했다고 한다.

우암은 장희빈이 낳은 숙종의 소생인 이윤(훗날의 경종)의 원자 책봉이 너무 빠르니 더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는 상소를 올렸다가 숙종의 미움을 사서 제주도로 유배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정읍에서 결국 사약을 받게 된다. 1689년 그의 나이 83세였다. 그런데 우암이 사약을 한 사발 마셨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마침내는 목을 졸라 죽었다. 사약의 효능은 썩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임형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권별(權別)은 술을 가져오라 하여 잔뜩 두어 사발을 마시고 '이 사람도 죽었구나' 하며 목이 잠기도록 울었다. 퇴계 이황은 "재주가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었는데 죄 없이 죽었으니 정말 원통하다"하며 몹시 애석해 했다.

편집국장 권행안

## 안동권씨 종보 구독 확장 협조 안내

안동권씨 종보는 안동권문의 전통이자 역사입니다.

안동권씨 종보는 100만족친의 소통매체입니다.

지역종친회를 중심으로

1인당 10명 이상 구독자를 확보하여 더 크게 화합합니다.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해옥

